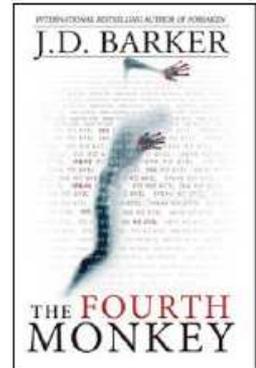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THE FOURTH MONKEY  
가제 : 네 번째 원숭이  
저자 : J.D. Barker  
출판사: 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17년 6월 27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 데뷔작 「*Forsaken*」으로 브램 스토커 상 후보에 오르고 고딕 호러 소설의 아이콘, 「드라큘라」속편 작가로 선정된 재능 넘치는 작가의 신작
- \* 영화 판권, 오디오북 판권 계약 판매 완료,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판권 계약 체결
- \* 영화 <세븐>과 <양들의 침묵>과 비견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스펜스 스릴러

7년 넘게 일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잡히지 않아 시카고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살인마. 기괴한 수법으로 경찰과 언론을 가지고 놀던 일명 ‘네 번째 원숭이’ 살인마가, 그를 끈질기게 쫓던 경찰 샘 포터 앞에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통사고로 즉사한 시체로 길 한복판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지독히도 손에 잡히지 않던 범인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도 또 다시 수많은 의문을 던진다. 아직 살아 있을지 모르는 마지막 희생자를 찾기 위해 포터는 살인자가 남긴 단서를 움켜쥔다. 아까운 생명을 제 시간에 구할 수 있을까?

일본 닛코 시에 있는 한 신사에는 나무에 조각된 원숭이 세 마리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귀여운 표정으로 제각기 앉아 있는 이 원숭이들은 형제처럼 닮았지만 제각기 다른 포즈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첫 번째 원숭이는 귀 한쪽을, 두 번째 원숭이는 눈 하나를, 세 번째 원숭이는 입을 손으로 막고서 ‘악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시카고에 등장한 살인마는 마치 이 메시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희생자들을 원숭이들이 말한 순서로 처리했다. 그의 목표물이 된 사람은 납치를 당하고, 이틀 후 희생자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곱게 포장된 하얀색 작은 상자 하나가 소포로 도착한다. 뚜껑을 열어보면 실종자의 귀 한쪽이 담겨 있다. 다시 이를 뒤에는 눈이, 또 이를 뒤에는 혀가 도착하고 그로부터 다시 이를 뒤에는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리고 죽은 이의 손에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네 번째 메시지가 적힌 종이가 쥐어져 있다.

포터 형사가 이 섬뜩한 공통점 때문에, 살인마에게 일본의 나무 조각에는 없는 ‘네 번째 원숭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잔인한 살인자를 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카고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렸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매번 희생자의 가족에게 보내는 그 하얀 상자 외에는 일체 단서를 남기지 않는 범인의 치밀함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 경찰도 언제 또 새로운 사건이 터질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전담팀에 들어왔다가 이내 다른 팀으로 가버린 술한 전임자들과 달리 포터 형사는 범인이 첫 번째 상자를 보낼 때부터 일곱 명의 희생자를 하나하나 죽이며 총 스물한 통의 소포를 보낸 그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 한가로운 하이드파크 인근에서 버스에 치인 주검으로 마침내 나타난 ‘네 번째 원숭이’는 그에게 그 동안 자신의 행적을 직접 기록해온 일기장을 남겼다. 살인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일기장에서 포터 형사는 사이코패스로밖에 볼 수 없는 괴이한 정신의 소유자가 저지른 악행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게다가 범인은 새로운 소포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길을 건너다가 버스에 치인 것이 분명했다. 쓰러진 그의 옆에서, 포터 형사가 그간 지겹게 들여다 본 그 하얀 상자와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포장된 귀가 발견된 것이다. 그가 새로운 타깃을 이미 납치했고, 첫 번째 소포가 막 꾸러졌으니 실종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명확한 단서였다. 이제 포터 형사에게는 그가 남긴 기록을 지도로 삼아, 마지막 희생자를 찾아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그러나 시신까지 발견되고도 범인의 신원은 마치 이 지구에 없었던 사람처럼 미궁에 빠져 드러나지 않는다. 죽어서도 꼬일 대로 꼬인 범인의 수수께끼는 포터 형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간다. 과연 포터 형사는 마지막 미스터리를 시간 내에 풀 수 있을까?

#### <저자 소개>

J.D. 바커(J.D. Barker)는 데뷔작 『Forsaken』으로 드라쿨라 원작자의 이름을 딴 ‘브램 스토커 상(Bram Stoker Award)’의 우수 데뷔작 결선 후보에 올랐다. 이 일을 계기로 스토커의 가족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 드라쿨라의 후속 소설을 공동 집필할 작가로 선정되었다.

제목 : THE WANGS VS. THE WORLD

가제 : 왕 씨네 가족 vs.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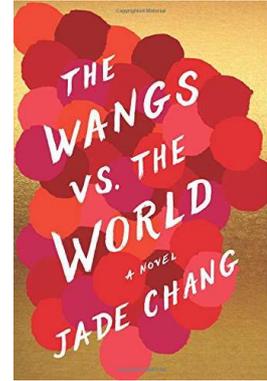
저자 : Jade Chang

출판사: 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16년 10월 4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코믹 소설



- \* 아마존 10월 우수 도서 선정, 「나일론」 매거진, 「*The Millions*」, 「*Entertainment Weekly*」 등 25 개 이상의 매체에서 '올 가을 가장 기대되는 책'으로 선정
- \* 영국, 캐나다, 브라질,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판권 계약
- \* "이 한 권의 책으로, 독자들은 영감이 된 한 가족은 물론 신시아 다프릭스 스위니의 「*The Nest*」, 엠마 스트라우브의 「*The Vacationers*」를 모두 만날 수 있다." - 북리스트
- \* "주인공 찰스가 몰락하면서 시작된 가족 여행을 다룬 정감 있는 데뷔 소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미를 안겨준다." - 「마리끌레르」

빈 손으로 미국에 건너와 화장품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중국인 이민자 찰스 왕. 자수성가의 대명사가 된 그는 이제 남은 생애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건만, 그 기대와 자신감이 화를 부르고 말았다. 경제위기는 그의 사업도 비켜가지 않았고 써도, 써도 줄지 않을 것 같았던 재산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찰스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다행히 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국유지로 빼앗긴 가문의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고국에서 그 땅을 기반으로 삼아 다시 땡땡거리며 살 수 있으리라. 찰스는 부푼 마음으로 중국에 돌아간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다. 이미 돈을 몰쓰듯 쓰는 생활에 젖어 있는 가족들을 설득해야 하고, 미국 대륙 반대편 끝, 뉴욕에 혼자 살고 있는 큰 딸도 찾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찰스는 딱 한 대 남은 차에 식구들을 태우고 일단 뉴욕으로 향한다. 호화로운 가구들이 들어찬 벨에어의 저택이며 가족들이 몰고 다니던 여러 대의 차는 이미 다 압류된 상태라 어차피 지낼 곳이 없어서 길거리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그리하여 다짜고짜 시작된 도로 여행은 왕 씨네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전에 몰랐던 놀라운 기억들을 끄집어낸다.

중국에서 태어나 대만에서 성장한 찰스 왕은 미국이라는 타국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진 건 없지만 대담하고 손이 커서 사업가로서의 자질은 다 갖춘 그에게 미국은 그야말로 기회 땅이었다. 빈털터리로 첫 발을 들인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화장품 사업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온 나라를 휩쓴 화장품 제국으로 성장했고, 덕분에 자식 셋을 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찰스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달콤했던 돈의 맛은 단 한 번의 투자 실수로 세상에서 가장 씁쓸한 실패의 맛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재산은 다 압류되고, 재혼한 아내와 대학에 다

니는 둘째 아들 앤드류, 고등학생 막내 그레이스까지 전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다. 남부 러올 것 없던 대부호에서 당장 하룻밤 머물 곳을 찾아야 하는 거지 신세가 된 그는 철저히 망가진 자신의 지위를 중국에서 되찾으리라 결심하고, 큰 딸 세이나라 만나러 무작정 뉴욕으로 향한다. 찰스가 잘 나가던 시절, 저택에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돌봐준 가사 도우미에게 선물로 안겨주었던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사정이 이 지경이니 그걸 돌려달라고 해야 했다. 그렇게 ‘찢다 뺏은’ 차로 우여곡절 끝에 여행이 시작된다.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둔 두 아이와 사치스러운 생활에 흠뻑 젖은 아내 바바라까지 네 사람의 목적지는 큰 딸이 있는 뉴욕이다. 딸 세이나는 한때 미술계에서 유명세를 타던 예술가지만 얼마 전 전시회에서 큰 창피를 당한 후 두문불출한 상태였다.

찰스의 가족은 중간에 뉴올리언즈에 들르는데, 그곳에서 스탠딩 코미디언이 장래희망인 슛총각 앤드류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여자와 묘한 관계에 빠진다. 이어 남아 있는 메이크업 제품을 배달하러 들른 앨라배마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도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연이어 터진다. 고된 여행과 찌든 생활에 지친 찰스의 아내 바바라는 남몰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하고, 멀리에서 세이나는 신뢰를 저버린 옛 연인과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남자 사이에서 갈등한다. 잔잔한 사고부터 감당 못할 사건까지 줄줄이 기다리는 여행은 찰스에게 선택을 종용한다. 벗어나기 힘든 예전의 생활, 어쩔 수 없이 견뎌 내야만 하는 새로운 삶,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그는 중국에서 새로 일구어보려 했던 자신의 꿈이 어쩌면 가족의 꿈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찰스와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양한 시각에서 가족의 과거사와 현 상황을 풍성하게 묘사하고, 이들이 경험한 다양한 세계를 보여준다. 더불어 작가는 이들을 통해 경제와 저널리즘, 미용 산업, 예술가들의 세계 등 세상의 여러 구역을 꽤 깊이 있는 시각으로 들여다본다. 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왕 씨 가족들의 코믹한 여행은 유머와 가족의 사랑, 에너지가 가득하다.

#### <저자 소개>

제이드 창(Jade Chang)은 선댄스 아트 저널리즘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저널리스트 겸 에디터로 예술계, 문화계에서 일해 왔다. 'AIGA/Winterhouse Award'의 디자인 비평 상을 수상하고, 이후 글쓰기 워크숍인 'Squaw Valley Community of Writers'에서 제임스 D. 휴스턴(James D. Houston)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다.

제목 : A STUDY IN SCARLET WOMEN

가제 : 주홍색 여인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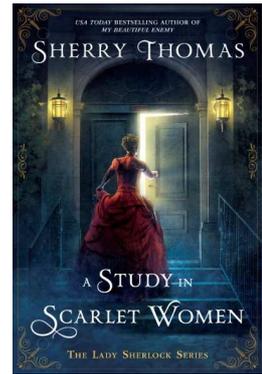
저자 : Sherry Thomas

출판사: Berkley

발행일: 2016년 10월 18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미스터리 시리즈



- \*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와 로맨스가 어우러지는 소설들을 발표하여 전 세계 **13개** 대륙에 **50만** 부 넘게 판매한 작가, 세리 토머스의 새로운 미스터리 시리즈
- \* “작가는 셜록 홈즈를 참신하고 흥미진진한 새로운 버전으로 재탄생시키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디에나 메리번
- \* “특유의 풍성한 문체로 열띤 흥분과 감정을 전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피엔딩을 선사한다” – 「뉴욕타임스 북 리뷰」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영국의 천재 탐정, 셜록 홈즈가 여자라면? 빅토리아 시대를 무대로 한 소설들로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온 작가는 이 특별한 상상을 새로운 미스터리 시리즈에 담아냈다. 성차별이 극심했던 1880년대 영국 런던에서 갑갑한 사회적 제약을 못 견뎌 하는 괴짜 아가씨 ‘샬럿 홈즈’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 같은 영리한 두뇌와 남다른 감각으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오리지널 시리즈처럼 주인공을 한결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도 샬럿 주변에 촘촘히 배치되어 이야기의 맛을 더한다. 원작을 모티브로 삼았지만 작가 나름의 스타일과 개성 있는 등장인물들이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네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난 샬럿 홈즈는 어릴 때부터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부터가 여느 아이들과 달랐다. 이 꼬마에게는 유난히 말수가 적은 것 말고도 특별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관찰력이 놀랍도록 뛰어나고 제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혼자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특단지는 결론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이었다. 샬럿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막내의 이런 능력을 간파했다. 샬럿이 평범한 귀족 자제의 딸들처럼 양전하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에 실망한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어딘가 특이하면서도 영리하고 침묵을 지키는 막내딸을 특히 아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샬럿의 인생을 궁지로 몰아 넣는 당사자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언니들처럼 좋은 집에 시집가서 지루하게 사는 삶은 애당초 선택지에서 지워버린 샬럿은 아버지에게 여학교 교장이 되겠다는 결심을 털어 놓는다. 아버지는 아직 미래를 확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니 몇 년 더 기다려보라고 타이르지만, 속으로는 딸의 소망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버지의 약속이 다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샬럿은 잔뜩 화가 나 극단적인 해결책을 택한다. 평범한 삶을 강요하는 부모님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릴 묘안을 떠올린 것이다. 바로 유부남을 유혹해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도 가정이 있으니 샬럿의 명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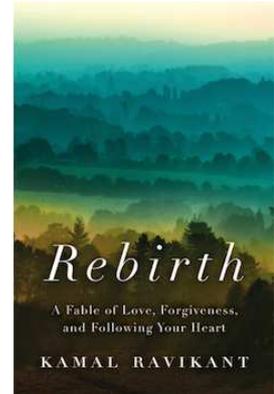
지켜준답시고 청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제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으면 감히 지체 높은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샬럿은 기막힌 아이디어라 생각했지만, 상대를 잘못 고른 게 탈이었다. 문제의 유부남은 샬럿과 외도하기로 한 전날 밤, 술에 진탕 취해 아내에게 그 계획을 털어 놓고 말았다. 결국 다음 날 밤,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샬럿이 그와 지극히 내밀한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남자의 아내와 장모가 현장에 들이닥치는 참사가 벌어진다. 처음 계획대로 이제 억지로 혼인할 일은 없게 되었지만, 이 수치스러운 사태가 동네방네 알려지면서 샬럿은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만다.

씻어내지 못할 구설수에 올라 부모님 집에서 지낼 수도 없게 된 샬럿은 겨우 구세주를 찾는다. 집안 일을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줄 사람을 찾던 왓슨 부인을 만난 것이다. 배우로 살다가 은퇴한 왓슨 부인은 재산도 넉넉하고 아무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내고 있지만 지루하고 심심하던 차에 샬럿과 만났다는 사실에 뭇 듯이 기뻐했다. 그제야 숨통이 트인 샬럿은 타고난 재능을 살려, 어려운 사건이 터지면 경찰에 수사에 대한 자신의 조언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느 날, 세 사람이 이상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발생하고, 샬럿의 아버지와 언니가 용의선상에 오른다. 두 사람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챈 샬럿은 진범을 찾아 사랑하는 가족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곁에서 요긴한 충고와 애정을 듬뿍 선사하는 왓슨 부인과 친구처럼 지내온 언니 올리비아, 아주 오래 전부터 남몰래 샬럿을 흠모하며 키다리 아저씨처럼 지켜준 남자까지,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샬럿은 사건의 실마리를 서서히 풀어간다.

#### <저자 소개>

셰리 토머스(Sherry Thomas)는 로맨스협회 작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이 시대 최고의 역사 로맨스 소설가로 인정 받고 있다. 『My Beautiful Enemy』, 『The Luckiest Lady』, 『The Perilous Sea』 등으로 USA 투데이 등 여러 매체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오르고 있다.

제목 : REBIRTH  
가제 : 다시 태어나는 길  
저자 : Kamal Ravikant  
출판사: Hachette Books  
발행일: 2017년 1월 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 소설



- \* 이탈리아 판권 계약 체결, 자신의 마음을 따를 줄 알게 된 사람에게 찾아온 마법 같은 변화
- \*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가장 멋진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책”  
– 베스트셀러 『*The Monk Who Sold His Ferrari*』의 작가, 로빈 샤르마
- \* “깊고 진실된 생각으로 아름답게 쓴 글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ake Time for Your Life*』의 작가 체리 리차드슨

아밋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을 떠나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온 인도로 날아왔다. 연락은커녕 이미 오래 전부터 소원해진 아버지의 소식을 아밋에게 전해준 건 뉴델리에 사는 이모였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모른 척 하면 안 된다는 이모의 말은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대로, 아밋은 아버지의 유골이 담긴 상자를 안고 갠지스 강으로 향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고, 가루가 된 유해를 꺼내 뿌리니 공기로, 발아래 물로 점점이 흩어졌다. 의식이 모두 끝나고 곁에 있던 승려와도 헤어진 뒤, 아밋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자니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미국에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스물일곱, 아밋의 목적 없는 방황이 시작됐다.

두 달 동안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밋은 계속 몸을 움직이기로 마음 먹었다. 지난간 일들이나 두려움, 죄책감, 포기하고픈 마음이 불쑥 치밀어 오를 때면 일단 접어두고 그냥 움직이자고 결심하고, 그러다 답이 떠오르기를 기대했다. 달라이 라마의 수도원이 있는 다람살라에 이르자 며칠을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아침마다 산에 올랐다. 몸에 기다란 주황색 천을 두른 승려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나는 승려를 보며 그는 무엇을 위해 가족과 사랑과 삶을 뒤로하고 여기에 왔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얻습니까?” 뜬금 없는 질문을 승려에게 던지기도 했다. 무슨 일과 맞닥뜨려도 전부 ‘네’라고 대답한다는 승려의 가르침은 아밋의 마음에 여운으로 남아 있을 때, 숙소에서 만난 이탈리아 청년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다. 정처 없이 방황 중인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아밋의 한탄에 그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그 길을 걸었고 자신도 언젠가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 함께 걸을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아밋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산티아고 순례길

에서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고 해요. 모두가요.” 스페인이라면 돈키호테, 와인, 빠에야, 플라멩고 정도만 떠올렸던 아밋은 그 날부터 그 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제 인도에 살면서 참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는 이모와 이모부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아밋은 무작정 스페인으로 향한다. 오랜 여자친구와의 이별과 의대에 가고 싶지만 생각만 할 뿐 달려들 용기는 없고 수시로 가슴을 짓누르는 오래 전의 아픈 기억들, 가족들의 기대로 갈 곳을 잃은 그는 그렇게 885 킬로미터에 달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첫 발을 디딘다. 길 위에서 아밋은 다양한 이유로 그곳을 찾아온 여행자들과 만난다. 삶의 여딘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아밋처럼 방향을 잃은 채 답을 찾는 사람들과 짝어지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과거를 내려놓으려고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그 기쁨을 만끽하려고 걷는 사람들이 아밋의 곁을 지난다.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마다 아밋에게 가르침을 준다. 걷고 싶은 만큼만 걸자고 시작한 순례길이지만, 아밋은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던 마음속 두려움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은데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날 것 그대로 그의 눈 앞에 나타나고, 늘 불확실하다고 단정 짓기만 했던 미래도 또렷한 현실로 다가온다. 한 달여간 순례길을 걸으며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과 정면으로 만난 아밋은 삶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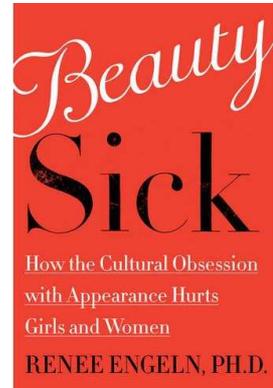
파올로 코엘료와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의 밋치 앨봄을 떠올리게 하는 아밋의 여행기는 작가가 직접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배우고 느낀 일들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가족과 헌신, 야망,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 믿음에 관한 해답을 선사한다.

#### <저자 소개>

카말 라비칸트(Kamal Ravikant)는 자가 출판한 베스트셀러 『Love Yourself Like Your Life Depends On It』, 『Live Your Truth』를 쓴 작가이다. 미국 육군 출신으로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했다. 위 소설의 주인공처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직접 걷고, 티벳 승려들과 명상을 하며 산 적도 있다. 현재는 실리콘 벨리에서 일하면서 책을 쓰고 있다.

## **NON- FICTION**

제목 : BEAUTY SICK  
가제 : 미인병  
저자 : Renee Engeln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7년 4월 18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 조회수 **18만** 회를 넘은 **TED** 강연의 주제, 미에 집착하는 여성들과 그로 인한 충격적인 결과
- \* 신체 이미지를 바라보는 방식을 연구해온 심리학 교수의 현실적인 조언
- \* 이탈리아,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여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도 남성 못지않게 확대된 시대지만 그와 다소 어울릴지 않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젊고 똑똑한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극히 집착하는 것이다. 이들이 몸매와 피부, 머릿결, 옷차림에 들이는 돈과 시간은 어마어마해서 그와 관련된 상품과 성형 붐은 ‘뷰티 산업’이라 불리며 거대 산업으로 발전할 정도다. 그러나 그저 사회 현상의 하나로 보고 넘어가기에는 그로 인한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심리학 교수로 인간이 자신과 타인의 신체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식을 주로 연구해온 저자는 미에 대한 과도한 집착, ‘미인병’에서 비롯된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한 TED 강연이 조회수 18만 회를 돌파하며 이 문제가 중요한 화두임이 입증된 이야기와 과학적인 근거, 생각보다 심각한 미인병의 놀라운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유독 아름다움에 대해 당황스러울 정도로 모순된 입장을 취한다. 바비 인형 같은 모습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 몸을 꾸미는 형태는 전체적으로 바비 인형 쪽으로 쏠려 있다. 또 방송에서 여성을 폄하하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여성을 대하면 크게 분노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문제가 많은 방송을 꾸준히 시청한다.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여성에 대한 미적 기준을 터무니 없이 높게 제시하거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의 잣대를 들이밀면 코웃음을 치고 포토샵으로 왜곡된 모델 사진을 게시하면 즉각 반발하지만, 바로 그 기준에 자신이 충족시키기 위해, 그 왜곡된 이미지대로 자신의 몸을 맞추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예쁘게 보정해 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더 뽀얗고 예쁘게 만든다. 이들은 그런 사진이 현실과 사뭇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아름다움을 제

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알리기 위해 맹렬히 싸울 줄도 안다. 무엇이 이런 모순을 만들까? 무엇이 여성들의 손에서 거울을 놓지 못하게 만들까? 저자는 지식 수준과 정보 획득의 가능성이 훨씬 향상된 세상이지만, 더 많이 알고 더 잘 아는 것으로는 이 '미인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거울에서 돌아서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려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외모에 집착하는 현상은 돈과 시간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식이장애를 일으키고 인지 능력까지 파괴한다. 저자는 과학계가 주목한 이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 시대를 사는 젊은 여성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결합하여 이처럼 스스로를 파괴하는 비뿔어진 욕구와 태도를 버릴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외모로 여성의 가치가 평가되는 세상을 증오했면서도 아름답지 않은 여성을 다른 여성들이 조롱하는 이상한 사회, 여성들 스스로가 만든 모순된 문화가 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짚어보고, 자신과 남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목차>

#### 1부. 미에 대한 집착, 젊은 여성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건강을 망가뜨린다

1장. 거울을 향해

2장. 몸과 마음, 돈, 그리고 시간을 거부하다

#### 2부. 왜 거울로 마음을 비춰볼까, 왜 마음 속에 거울이 있을까

3장. 아름다움은 언제나 중요하다(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장. 심각한 주류 언론: 미디어 정보에 대한 해독능력,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5장. (반)소셜 미디어: 몸매 놀리기, 뚱뚱한 몸은 수치, 페이스북이 만든 판타지

#### 3부. 지옥의 특별한 구역(다른 여성과 등진 여성들이 가는 곳)

6장. 난 너무 뚱뚱해. 난 너무 못생겼어.

7장. 헐, 저 여자 좀 봐

#### 4부. 거울을 놓으면 거울이 당신을 붙잡는다

8장. 미인병에서 벗어나기

9장. 가족, 친구들도 미인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

10장. 우리 몸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

#### <저자 소개>

르네 앵겔(Renee Engeln)은 15년째 심리학 교수로 정신심리학과 여성의 심리학, 사회 심리학, 인간의 아름다움에 관한 심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 중 최근 9년은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신체 이미지와 뚱뚱한 몸에 관한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기고하고, 미국 전역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왔다. 최근에는 켈로그 '스페셜 K' 브랜드에서 실시하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 개선 캠페인에 자문을 제공했다.

제목 : SILICON STATES

가제 : 실리콘밸리의 나라

저자 : Lucie Greene

출판사: Regan Arts

발행일: 2017년 봄

분량 : -

장르 : 사회



**\* 중국, 대만 판권 계약 체결**

**\* 기술이 사회를 지배하고 정부의 역할까지 대신하는 시대, 기술 중심의 사회가 맞이할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

전 세계 기술산업의 중심인 실리콘밸리가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 곳곳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기반시설과 학교, 교육, 대중교통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켜 문화와 개개인의 이데올로기까지 그 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가 정부의 일에 불어 넣는 입김도 점차 거세지는 추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페이스북 대통령’이라 불리며 국민들과 이 최신 매체로 직접 대화하고, 페이스북 공동설립자 피터 틸이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나서는 등 이미 실리콘밸리와 정치의 접점, 결합은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 같은 현실이 먼 미래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공동 목표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추구하려 한다면 세계 정세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구성원 대다수가 백인, 남성, 부유층인 이 거대 기술 공동 결집체가 사회 전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과연 그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심층 연구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소비자 행동을 비롯해 전 세계 문화와 산업의 변화를 전망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하나의 개별국가처럼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와 일반시민, 산업계의 눈을 양쪽 모두 살펴보면서 기술의 미래와 미래 기술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내세우는 미션과 이들이 추구하려는 목표를 살펴보면, 다소 놀라울 정도로 오만하다. 자신들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마음껏 드러낸 이런 분위기는 반대로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정부와 정치와 맞물려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자는 전에 없던 신선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실리콘밸리가 정부나 다른 거대 산업이 해야 할 일, 즉 뿌리 깊은 관행과 오래된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 허점을 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누구보다 발 빠르게 관습을 뒤엎는 일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익숙한 것을 뒤흔 바꾸는 것만이 올바른 변화일까? 이런 경쟁적이고 파괴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초점을 맞춘 탈중심화와 그에 반드시 수반되는 권리의 축소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과연 유익한 결과로 이어질까? 저자는 바로 이 같은 문제를 파헤치고, 최신 기술을 무기로 모든 변화에 앞장서려는 실리콘밸리의 왜곡된 시각을 꼬집는 한편 정부와 소매업계, 대형 광고업계, 언론계가 그와 정반대로 구시대적 사고에 머무르고 변화는 다른 곳에 맡기려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기업이 휘두를 수 있는 거대한 영향력과 기술 중심의 사회가 맞이할 수 있는 미래를 날카롭게 분석한 책이다.

#### <목차>

- 1장. 실리콘밸리 국가의 탄생 배경
  - 2장. 이데올로기, 가치, 문화의 리더가 되다
  - 3장. 세상의 변화를 예견하는 힘
  - 4장. 실리콘밸리와 정부의 긴장감, 기술 중심의 사회, 기술의 영향력
  - 5장. 실리콘밸리와 미래
- 결론. 이런 상황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피할 수 없는 현상인가?

#### <저자 소개>

루시 그린(Lucie Greene)은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업체 'J. Walter Thompson'에서 국제부 총책임자를 맡아 전 세계 소비자 행동과 문화적 변화, 산업부문 개혁 등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글을 기고하고 CES, SXSW, Web Summit 등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미래 전문가로 참석하여 강연을 해왔다. BBC, Fox News, Bloomberg TV 등에도 출연했다.

제목 : DISPARITIES

가제 : 불균형

저자 : Slavoj Žižek

출판사: Bloomsbury Academic

발행일: 2016년 10월 20일

분량 : 456 페이지

장르 : 철학



- \* 헤겔 철학과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정치, 영화, 사회현상에 관한 철학적 분석을 제시해 온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이 바라본 ‘불균형’의 의미
- \* 긍정 철학에 맞선 현대의 다양한 부정철학을 분석하고 불균형의 올바른 의미와 정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 책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인근 깊은 바다에 살다가 와르르 깨어나면 배를 공격한다고 알려진 바다 괴물 크라켄. 철학에서는 ‘불균형’ 혹은 ‘격차’의 개념이 잠에서 깨어난 크라켄이 일으킨 것만큼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으로 현 시대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저자는 불균형의 이 막대한 힘을 이 책에서 존재론, 미학, 신학과 정치학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짚어보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불균형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찰한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발생한 격차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기술 중심의 세상으로 변모하면서 한층 더 벌어지고 더욱 일차원적인 형태로 고착되었다. 또 미학적인 차원에서는 못생긴 것, 역겨운 것, 비참한 것과 같은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신학에서는 신을 다른 존재와는 극히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로 여기면서 거대한 불균형이 나타났다. 또 정치에서는 과거를 모두 삭제하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정치가들이 등장하고 이것이 호응을 얻으면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 큰 틈이 벌어졌다. 저자는 ‘진선미’로 요약할 수 있는 인류의 전통적인 세 가지 중심 가치인 ‘진실, 아름다움, 선함’을 기준으로 이 같은 격차가 남긴 영향과 진정한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책 1부에서는 과학 중심의 시대에 나타나는 존재론적 격차를 이야기한다. 보편적인 과학적 사유의 방식으로 자리한 논리는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그 중 가장 우세한 두 가지 과학적 사유에 대해 철학계가 나타낸 두 가지 반응을 설명한다. 즉 대상 지향성 존재론으로 세상의 관심을 얻으려는 노력과, 과학적인 연구가 상호 인식이라는 두서 없는 규범성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초월적인 시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책 2부에서는 미적인 불균형으로 시선을 돌려, 현대의 주체성에 추함과 역겨움이라는 정서가 주는 영향을 살펴본다. 현대 추상예술에 대한 헤겔의 해석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비체(\*자신을 주체도 대상도 아닌 존재로 느끼는 것)’의 형태, 그리고 셰익스피어나 베케트의 작품 등 예술에 나타

난 '주관적인 절망'의 형태를 분석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신학적, 정치적 격차를 주제로, 독일의 극작가 쉴러의 연극에 나타나는 현대 사회 인간관계의 권한과 옷차림, 우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의 '현존'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주체가 트라우마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체 자체가 트라우마라고 보는 시각의 변화가 발생한 과정을 따라가보고, 사회가 불균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한다.

카트린 말라부의 가소성 이론,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이야기하는 비체(abjection), 로버트 피핀의 자의식 개념, 부정신학, 포스트 휴머니즘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현대 철학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부정' 철학을 두루 고찰하고 상상과 변증법이 결합된 물질주의를 토대로 불균형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그가 채택한 이 새로운 형태의 부정성은 각기 다른 철학적 사고의 만남을 통해 거짓 중에 진실을 분리해내는 기준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격차, 불균형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만한 책이다.

#### <목차>

머리말. 헤겔이 죽은 걸까, (헤겔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죽은 걸까?

#### 1부. 진실의 격차: 주체와 대상, 그 나머지

1. 인간, 포스트휴먼, 그리고 다시 인간성 상실로: 지속되는 존재론적 차이
2. 대상, 대상, 그리고 주체
3. 자의식, 그런데 어느 자의식을 가리키나? 헤겔의 재규격화와 맞서다

#### 2부. 미의 격차: 추한 것, 처참한 것, 그리고 최소한의 차이

4. 헤겔 이후의 예술, 예술의 종말 이후 헤겔
5. 비체의 종류: 추하다, 소름 끼친다, 역겹다
6. 변화가 없을 때: 주관적인 비참함에 관한 두 가지 인식

#### 3부. 선의 격차: 물질주의자의 부정신학

7. 하이에나가 된 여성들의 시련: 권한, 옷차림, 우정
8. 신이 죽고 의식이 없다면 악마는 무력하고 멍청한 걸까? 그저 조건법적인 생각일 뿐일까?
9. 머무르는가 움직이는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주체, 트라우마 자체인 주체

결론: 절망할 용기

#### <저자 소개>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은 현재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며 문화와 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다. 영국 버벡대학교 인류학 연구소, 뉴욕 뉴스쿨 사회학연구소에서도 각각 연구책임자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비평가로 인정 받고 있으며, 저서로 『Antigone』, 『Interrogating the Real』 등을 발표했다.

제목: WORK WITH ME

가제: 저랑 일하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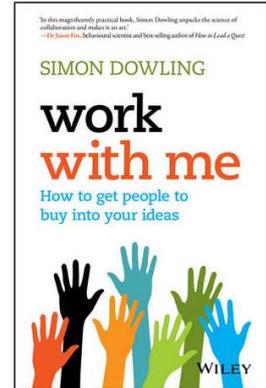
저자: Simon Dowling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10월 3일

분량: 200 페이지

장르: 경영



\* **“굉장히 실용적인 책. 저자는 협력의 원리와 협력을 기술로 만드는 방법을 풀어냈다.”**

- 행동과학자, 베스트셀러 『**How to Lead a Quest**』의 저자 제이슨 폭스

\* **“효율을 높이고 변화를 일으킬 촉매를 찾는 리더에게 유용한 팁이 가득하다. 학습을 통한 리더의 자기 반성, 꾸준한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 Ricoh Australia Pty Ltd 전무이사, 존 홀**

사람마다 제각기 현재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갖고 있다. 혹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생각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혼자만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을 이끄는 리더라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고, 그 생각대로 기꺼이 실행에 옮기는 것, 바로 그렇게 만들 줄 아는 능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별히 비용을 들여 광고하지 않아도 꾸준히 잘 팔리는 상품처럼 아이디어와 의견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고 실천한다면 목표 달성 성과 성공은 훨씬 더 수월해진다. 기업과 일터에서 새로운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조언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자발적인 지원’의 방법을 알려준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자신이 진정 원해서 하는 일은 억지로 하는 일보다 효율이 뛰어나고 성공 확률도 높고, 리더에게는 자신이 추진하는 일에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세로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구성원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일처럼 뛰어들면 새로운 사업이든 프로젝트든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든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소속 분야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리더가 힘이나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지원과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팁을 이 책에서 알려준다.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느린 경영진이나 뛰어난 기술자, 두각을 나타내는 스포츠 팀, 정부 관료, 의료계 전문가들, 영업사원들이 일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다. 함께 일하거나 경쟁하는 상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 상대가 일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 그리고 상대가 우려하는 문제를 자신이 제대로 인식하는 방법, 서로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법, 그리고 상대가 확신을 갖고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고민의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그 뿌리를 파고들면 바로 이런 고민으로 요약된다. 어쩌면 우리는 어릴 때 운동장에서 뛰어 놀거나 친구들과 모여 앉아 갖가지 놀이를 할 때부터 상대가 내 말을 믿고 따르기

바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사업과 업무의 측면에서 강요나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호응과 지원은 일의 성패를 가능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협력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저자는 가장 기본적인 대인관계의 기술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으로 실천하기에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이 기술을 타고난 성향처럼 몸에 익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과 마음가짐은 물론, 변화를 싫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저항을 이겨내는 법, 순수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에 형체를 입히고 훨씬 더 나은 삶,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안내서다.

#### <목차>

##### 1부. 준비

1. 변화: 지지 기반이 될 힘을 선택하라
2. 마음가짐: 가능하다고 상상하라
3. 확신: '그래서 뭐?'라는 질문으로 더 큰 그림을 그려라
4. 사람: 생각은 넓게, 행동은 촘촘하게
5. 타이밍: 상황을 파악하고 흐름을 타라
6. 자기 관리: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라

##### 2부. 출발

7. 감정: 사람들이 '느끼게' 하라
8. 마음: 이유를 제시하라
9. 실행: 꾸준히 실행하라

지지 확보를 위한 로드맵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 <저자 소개>

사이먼 다울링(Simon Dowling)은 호주 멜버른에서 업체 리더와 팀을 대상으로 업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컨설턴트 겸 코치로 활동하면서 호주 전역에서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로 일하다가 TV 쇼 등 각종 코미디 쇼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제목 : THE CALL OF THE PRIMES

가제 : 놀이로 다시 배우는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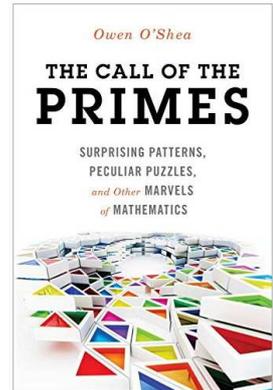
저자 : Owen O'Shea

출판사: Prometheus Books

발행일: 2016년 3월 29일

분량 : 270 페이지

장르 : 수학



- \* 수학에 담긴 놀라운 패턴과 특이한 퍼즐, 신기한 수학의 비밀을 게임으로 보여주는 책
- \* “수학에 관한 이야기나 퍼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배경지식이 거의 없어도 분명 이 책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 유럽 수학회
- \* **16**개의 짙막한 장마다 마틴 가드너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 쓴 인기 칼럼 “수학 게임”의 신나는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가로 젓는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우는 여러 과목 중에서도 수학만큼 “어렵다, 지겹다, 싫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과목도 없으리라. 대학 입시가 수학을 배우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유일한 이유였던 시간을 보냈고, 그런 이유로 배운 수학은 교과서라는 틀 안에서 일방적인 지식을 강요했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수학자들이 만든 것이 ‘유희수학’이다. 놀이 수학으로도 불리는 이 새로운 수학은 어려운 공식이나 원리를 몰라도 퍼즐이나 게임을 하면서 수학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깨우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에서는 마틴 가드너라는 수학자가 25년 전, 유명한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 매달 유희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면서 수학이라면 질색하던 독자들을 그 숨겨진 매력으로 끌어들이며 큰 인기를 얻었다. 저자는 수학을 그저 따분하고 실용성도 없는 학문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 이 책에서 쉽고 재미 있는 유희 수학을 소개한다. 가로세로 어느 쪽으로 더해도 합이 같은 신기한 마방진부터 1 외에 나누어지는 숫자가 없는 소수에 숨겨진 희한한 특징, 수학 시간에 우리를 괴롭혔던 피타고라스 정리와 확률이론으로 만든 흥미로운 퍼즐까지, 다양하고 재미 있는 놀거리가 가득하다.

소수를 몇 개 나열해보면 2, 3, 5, 7, 11, 13, 17, 19, 23, 29와 같은 순서로 이어진다. 맨 앞에 있는 2와 3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6의 배수와 1이 작거나 큰 숫자라는 것이다. 7은 6보다 1이 크고, 13은 12보다 1이 크고, 17은 18보다 1이 작다. 우연의 일치일까? 다른 소수도 그럴까? 궁금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소수를 더 길게 써 놓고 살펴보면, 역시나 그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이를 적용하면 6의 배수에서 1이 작거나 큰 숫자는 6으로 나눌 수 없고, 2와 3으로도 나눌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저자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특징을 찾고 꼬리에 꼬리를 물 듯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숫자의 묘한 매력으로 독자를 자연스럽게 안내한다. 그와 함께 수학은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과목이 아니라 원래 나라를 지키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기계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등 지극히 실용적인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과 사례를 들어 폭넓게 설명한다.

덧셈과 뺄셈만 알아도 훨씬 더 어려운 수학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 공부의 방식을 알려주는 유익한 책이다.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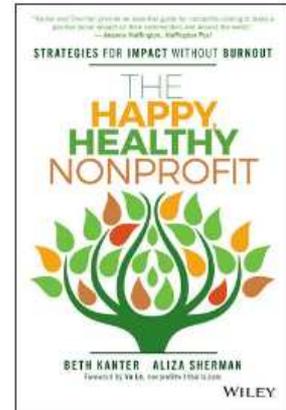
##### 머리말

- 1장. 『로 강(江)의 서』와 신기한 마방진
  - 2장. 소수의 부름
  - 3장.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 4장. 몬티 홀 문제와 확률 이론에서 나온 속임수 퍼즐
  - 5장. 피보나치 수열
  - 6장. 루카스 수열
  - 7장. 무리수 파이
  - 8장. -1의 제곱근
  - 9장. 2의 제곱근
  - 10장. 제곱수
- (이하 생략 - 총 16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오웬 오셔(Owen O'Shea)는 아일랜드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Journal of Recreational Mathematics*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해 왔다. 저서로는 『The Magic Numbers of the Professor』가 있다.

제목 : HAPPY HEALTHY NON- PROFIT  
가제 : 비영리사업 행복하고 탄탄하게 키우는 법  
저자 : Beth Kanter, Aliza Sherman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10월 10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 \* **“지역과 전 세계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고픈 비영리사업에 꼭 필요한 지침서”**  
- 「허핑턴 포스트」
- \*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챙기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필독서.”** -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교 마케팅 교수, 제니퍼 아커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사업을 운영하려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다들 열정과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첫 마음은 시들해지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려 자신은 물론 회사나 조직 전체에 악순환이 시작된다. 개개인의 행복과 건강은 일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일을 대하는 자세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사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나날이 늘어만 가는 일을 다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비영리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에 정말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 두 저자는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그 어떤 사업보다 큰 열의로 시작되는 비영리사업이 오래오래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가로 인정 받고 있는 두 저자는 직설적인 충고와 유머가 가미된 깊은 통찰력으로, 사업의 목표를 기대치 이상 유지하면서 자기관리를 놓치지 않는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회사와 사업이 정한 미션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자기 관리의 핵심, 현재 자신이 얼마나 지친 상태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다시 처음의 열정과 에너지를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자신과 일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 제시된다.

두 저자가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모두 실제로 사회 변화를 꿈꾸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운동가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 건강하고 행복한 습관을 들이면서 사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성공을 거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교훈이다. 비영리사업에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책 첫 부분에는 누구나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고충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기 관리의 원리를 자신과 조직, 더 나아가 비영리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비영리사업의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서로를 돕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해야 하고, 회사 역시 구성원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걸으면서 회의하기, 휴가 계획은 무조건 지키기, 최신 기술에서 일체 벗어나서 지내보기 등 자칫 어려워 보이지만 해내지 못할 이유도 없는 구체적인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며, 조직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디든 적용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하다.

비영리단체 대표와 구성원 모두 원대한 목표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 <목차>

머리말.

비전 / 이 책을 쓴 이유 /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

#### 1부. 나에게 새로운 활기가 필요하다

1. 문제: 비영리사업을 시작한 전문가들은 왜 다들 지쳐버릴까
2. 기초: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법
3. 평가: 습관을 바꾸고 자기관리 계획을 세워라
4. 실제: 스스로를 위한 즐겁고 건강한 일
5. 업무의 흐름: 일하는 방식 바꾸기

#### 2부. 사업에도 새로운 활기가 필요하다

6. 문화: 조직에 변화를
7. 활동과 동기: '자기' 관리에서 '단체' 관리로
8. 절차: 일터에서 행복하려면
9. 전략: 행복하고 튼튼한 비영리사업을 향해

#### <저자 소개>

베스 칸터(Beth Kanter)는 교육자, 강연가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 중이다.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로부터 '기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저서로는 『The Networked Nonprofit』 등이 있다.

알리자 셔먼(Aliza Sherman)는 웹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분야의 초기 발전을 이끈 인물로 여성이 이끄는 최초의 인터넷 네트워킹업체 'Cybergrrl, Inc.'을 설립했다. 강연가로도 활동 중이며 『Social Media Engagement for Dummies』 등 총 10권의 저서를 발표했다.